

문화재청 공고 제2011 - 135 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있다고 평가된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등 5건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1. 6. .

문 화 재 청 장

1. 공고명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2. 공고사항

○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예고

- 대상문화재 : 5건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 충마계회도

○ 지정 예고 사유 : 붙임 참조

3. 예고일자 : 관보 공고일

4. 예고기간 : 관보 공고일부터 30일 이상

5. 연 락 처

○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유형문화재과

-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 전 화 : 042-481-4687 / 팩스 : 042-481-4939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전자메일 wenhua1@korea.kr

□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群山 東國寺 塑造釋迦如來三尊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전북유형문화재 제213호(2008.01.04. 지정)
- 소 유 자 : 대한불교 조계종 동국사
- 수 량 : 3구, 발원문 3점, 복장유물 일괄(18건 373점)
- 규 격 : 석가여래좌상 높이 147cm 무릎 폭 107.5cm
가섭존자입상 높이 159.5cm
아난존자입상 높이 160cm

○ 재 질 : 흙, 나무

○ 제작연대 : 1650년(효종 1)

○ 내용 및 특징 : 군산 동국사는 1909년 일본인 조동종 승려 금강선사(錦江禪師)가 개창한 사찰로, 1956년 6월 12일 불교전북교당에서 인수하여 동국사로 개명하고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선운사 말사로 등록되어 있다. 동국사 경내에는 일본식 대웅전이 등록문화재 제64호 등록되어 있다.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소조석가여래삼존상은 원래 금산사 대장전에 모셔져 있던 것인데, 동국사 주지였던 김남곡스님(1913~1983)이 전북종무원장으로 재직 하던 1950년대 후반 이곳으로 이안하였다고 한다.

가섭과 아난존자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존상은 순치 7년(효종 1, 1650) 6월에 조성불사를 시작하여 9월 2일에 공사를 마쳐 금산사에 봉안하였다고 한다. 불상 조성에는 벽암각성(碧巖覺性, 1575~1660)¹⁾과 호연태호(浩然太浩, 1564~1652)²⁾등 당시 불교계를 대표하는 양대 문파의 최고승이 참여하여 증명하였고, 조각(彫刻)은 응매(應梅)를 비롯한 관해(寬海), 천명(天明), 성율(性律), 노원(魯元), 사준(思俊), 뇌인(雷忍) 등 6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석가여래상에서 발견된 시주질(施主秩)에 따르면, 불상조성에 참여한 승속(僧俗)이 무려 1,050여 명에 이르는데, 이것만으로도 당시 불사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불상을 조성한 수조각승 응매(應梅)는 1614년 수화원 각민(覺敏)을 모시고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을 제작하였고, 차화원(次畵員) 관해(寬海)는 1633년 인균(印均)이 수화승으로 참여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석가여래삼존상 및 16나한상 조성에 참여하였다. 또 성률(性律)은 1633년 수화승 무염(無染)과 함께 선운사 대웅

1) 벽암 각성은 芙蓉靈觀(1485~1571) - 浮休善修(1543~1614)의 법맥을 이었다.

2) 浩然 太浩는 芙蓉靈觀(1485~1571) - 淸虛休靜(1520~1604) - 靜觀一禪(1533~1608)의 법맥을 이었다.

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을 조성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시주자 중 신경(信岡)³⁾, 도우(道雨)⁴⁾, 쌍조(雙照)⁵⁾, 회장(熙莊)⁶⁾ 등은 17세기 중엽 경 활발히 활동했던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다른 유파의 조각승이 주도한 불사에 시주자로 참여한 것이어서 흥미롭다.

삼존의 구성은 향마촉지인을 결한 석가여래를 중심으로 상수제자(上首弟子)인 가섭과 아난존자를 좌우에 배치한 석가여래삼존형식이다. 통상적으로 볼 수 있듯 가섭은 늙은 비구형으로, 아난은 젊은 비구형으로 표현하였다. 제작기법은 나무로 전체적인 윤곽을 잡은 다음 흙으로 완성한 목심 소조불상이다.

우선 석가여래상의 머리는 육계와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고 가는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머리의 중앙과 정상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반구형의 정상계주를 갖추었다. 신체에 비해 다소 크게 표현한 얼굴은 양 볼과 턱 선을 두툼하고 부드럽게 처리하였다. 코는 높고 큼직하며, 콧방울을 크고 두툼하게 처리하여 중후하면서도 개성적이다. 적당히 부풀린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의 중생을 굽어 살피듯 시선을 깊이 있게 처리하여 온화하고 자비롭다. 얼굴에서 풍기는 중후함은 1633년에 조성된 김제 귀신사 영산전 소조석가여래좌상이나 익산 심곡사 아미타여래좌상 등과 유사하다.

착의형식은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 장의 대의로 걸쳐 입되, 오른쪽 어깨를 살짝 덮은 변형의 편단우견 착의법이다. 대의는 두텁게 처리하여 신체의 굴곡은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오른쪽 어깨를 덮은 대의 자락은 한번 가량 날렵하게 반전시켰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선의 강약 변화가 거의 일정한 직·곡선을 사용하였으나 흙으로 빚은 탓인지 부드러우면서 골이 깊어 탄력적이고 입체적이다. 가슴 아래로는 대각선으로 한번 접어 단순화 시킨 군의가 표현되었고, 그 아래로 불룩 나온 복부의 곡선이 간취된다. 특히 양쪽 어깨에 표현된 골 깊은 입체적인 Y자형 주름과 역Y자형 주름이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향마촉지인을 결한 수인은 손가락 마다 미묘한 변화를 주어 잔잔한 운율이 느껴진다.

3) 信岡은 1650년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화원 회장), 1652년 전북 완주 정수사 극락전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수화원 무염), 1657년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상(수화원 도우), 1664년 전남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도우) 등을 제작하였다.

4) 道雨(또는 道祐)는 1633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화원 무염),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무염), 1651년 강원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및 지장보살삼존상(수화원 무염), 1655년 경북 칠곡 송림사 석조삼장보살좌상(수화원), 1657년 칠곡 송림사 대웅전 석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64년 나주 죽림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등을 제작하였다.

5) 雙照는 17세기 중반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된다. 그는 1633년 전북 고창 선운사 대웅보전 목조비로자나삼불좌상(수화원 無染), 1635년 전남 영광 불갑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無染), 1657년 경북 칠곡 송림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수화승 道雨) 등을 제작하였다.

6) 熙莊은 1639년 경남 하동 쌍계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수화원 청헌), 1646년 전남 구례 천은사 수도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50년 전북 진안 금당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수화원), 1654년 경북 청도 대운암 목조보살좌상(수화원), 1661년 부산 범어사 대웅전 목조석가여래삼존좌상 등을 제작하였다.

좌법은 길상좌로 왼쪽 넓적다리에 올린 오른발은 노출하였고 대의자락에 덮인 왼발은 윤곽만을 표현하였는데, 조선후기 불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표현방식이다. 무릎에 표현된 주름은 오른쪽 발목을 크게 반전하며 내려온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의 주름이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져 있고, 오른쪽 발가락 위로 드리워진 소매자락은 잎 형을 이루고 있다. 특히 무릎 앞쪽으로 중앙의 넓은 八字형의 띠 주름을 중심으로 파형을 이루며 자연스럽게 펼쳐진 부채꼴 주름은 17세기 전·중엽 경에 활동한 인균파(印均派) 작품과 유사하다.

가섭과 아난은 최근의 개칠로 인해 세월이 주는 고고한 맛은 없다. 가섭은 가사장삼을 편단우견으로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시립하고 있으며, 이(齒)를 드러내고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자비로운 모습이다. 그는 두타제일(頭陀第一)의 수행자답게 수행 이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도록 얼굴의 주름, 노비구의 노쇠한 骨筋까지 세밀하게 표현하였다. 수인은 주먹 쥔 오른손을 왼손으로 감싸 쥔 다음 세운 오른손 검지를 왼손 검지 첫마디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 비로자나불의 지권인처럼 지은 이러한 수인은 가섭존자의 수인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잘생긴 청년 비구형의 아난은 두터운 가사장삼을 걸치고 석가모니불의 오른쪽에 시립하였다. 두 손은 모아 합장하였다. 두 상의 주름은 석가불상과 마찬가지로 부드러우면서도 탄력이 있고 입체적이다.

이 석가여래삼존상은 양식 상 양감이 풍부한 중후한 상호, 무게감이 느껴지는 장중한 신체비례와 양감, 부드럽고 입체적인 선묘, 그리고 옷 주름 표현 등에서 17세기 전중반의 대표적인 조각승 응원·인균파 내지 무염파 불상조각 양식을 계승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불상 조성에 참여한 화원(畵員) 가운데 1633년 김제 귀신사 영산전 불상 조성에 인균(印均)과 함께 작업을 했던 관해와 같은 해 고창 선운사 대웅전 비로자나삼불조성에, 무염과 함께 작업 했던 성율(性律)이 보조화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동국사 석가여래삼존상에서 발견된 복장유물은 후령통과 후령통의 내부에 납입된 오보병 유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들 유물은 1650년 조성 당시에 납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석가여래상(본존)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施主秩	종이	1점	1650년경	32.8×290.0	필사
2	喉玲筒	은	1점	1650년	높이 9.7 폭 4.2 두께 0.076	*喉蓋는 없음.
3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6책	1586년 (조선 선조)	30~38× 19~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19)각,[후쇄]		권3말:萬曆十四年(1586)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4	妙法蓮華經 권1	楮紙	6책	1609년 (광해군 원년)각,[후쇄]	30×38cm	목판본, 사주단변, 8행13자. 흑구, 상하내향2엽화문어미. 萬曆三十七年(1609)己酉全羅道歸信寺開板, 가철
5	妙法蓮華經 권1~3	楮紙	1책	17세기	16×25cm	목판본, 10행20자, 선장. 판심제:法. 본문에 구결 있음. 겉표지 없음.
6	妙法蓮華經 권4~5	楮紙	1책	17세기	16×27cm	목판본, 사주단변, 10행20자. 상하내향흑어미. 선장. 권5는 8장임. 겉표지 없음.
계	6권 26점					

② 가섭존자상(좌협시)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發願文	종이	1점	1650년	35×113.5	필사
2	發願文帶	종이	1점	1650년	35.5×4.8	*發願文帶에는 묵서로 “此二軸左右補」處尊一 “安” ”이라고 쓰여 있다.
3	喉玲筒	은	1점(일괄)	1650년	높이 약14.8 폭 약 4.2	*발견 당시 모습대로 해포하지 않음.
4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2책	1586년 (조선 선조 19)각,[후쇄]	30× 19~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권3말:萬曆十四年(1586)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5	妙法蓮華經 권1~3	楮紙	3권1책	17세기	28×17cm	목판본, 사주단변, 10행20자. 선장. 판심제:法. 겉표지 없음.
6	禪門拈頌集 권16~18	楮紙	3권1책	17세기	25×17cm	목판본, 좌우쌍변, 무계, 12행21자. 상하향흑어미. 선장. 겉표지 없음.
7	陀羅尼	종이	163장	조선	28×51	梵字. 목판본(주색).

				시대		
계	7건 180점					

② 아난존자상(우협시)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 (cm)	비고
1	發願文	종이	1점	1650년	29.8×126	필사
2	喉玲筒	은	1점(일괄)	1650년경	높이 12.0 폭 4.24 두께 0.06	*오방경 : 방경1점, 삼각경1점, 반월경1점, 원경2점. *양면원경 : 가장자리를 엮으로 접은 형태 1점. *오보병 : 오방색의 보자기에 방위에 따른 각종 상징물을 납입하였음. *황초폭자 1점 *각종 직물잔편 등
3	妙法蓮華經 권1~7	楮紙	12책	1586년 (조선 선조 19)각,[후쇄]	권1·2·3·4·6:3 0× 20cm 권5·7:30× 28cm	木版本, 四周單邊, 無界, 10行20字. 판심제:法 권3말: 萬曆十四年(1586)丙戌全羅道金堤郡僧伽山興福寺開板, 가철 및 날장 형태
4	陀羅尼	종이	75장	조선시대	28×51	梵字. 목판본(주색).
5	白紙	종이	79장	조선시대	80×51.5	충전용
계	5건 167점					

○ 문화재 지정 가치 : 세 불상에서 나온 전적물이나 복장물의 기록에서 이 상이 전라도 지역에서 활약하였던 이름이 알려진 조각승에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 불상양식이 형식적으로 흐르기 전단계의 소조불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며 세 불상에서 나온 복장물은 후령통의 제작기법, 내용물, 재질 등을 밝히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석가여래삼존상은 물론 복장물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및 腹藏遺物)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 수량 : 3구, 복장유물 일괄(67건 77점)
- 규격 : 석가여래 높이 112.2cm 무릎 폭 79.6cm
 약사여래 높이 103.3cm 무릎 폭 75.8cm
 아미타여래 높이 105cm 무릎폭 70.0cm
- 재질 : 목조
- 제작연대 : 1606년(선조 39), 중수개금 1883년(고종 20)
- 내용 및 특징 : 공주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되어 있는 삼불상은 사바세계의 공주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좌우에 동방 만월세계의 약사여래와 서방 극락세계의 아미타여래를 배치한 공간적 삼세불상 형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공간적 삼불좌상은 임진왜란 이후 크게 유행한 형식으로 이 불상도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하겠다.

이 삼불좌상에서는 개금(改金) 전 2010년 8월 11일에서 8월13일까지 3일간 진행된 사전 복장조사에서 불상의 조성 및 중수과정을 알 수 있는 발원문과 불상의 심장에 해당하는 후령통, 법사리(法舍利)로 납입된 경전류, 그리고 시주자의 소원이 담겨있는 유물 등 다양한 복장유물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불상의 조성과 관련된 발원문은 세 종류가 발견되었다. 조성발원문은 삼불상(三佛像)에서 모두 발견되었고, 약사불상에서는 1883년의 중수발원문이, 아미타불상에서도 1883년의 중수발원문과 1957년의 중수발원문이 발견되었다. 이들 발원문은 조성 이후 진행된 중수 과정을 중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다.

불상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에 따르면, 이 삼불좌상은 만력 34년 병오(1606년, 선조 39) 공주 계룡산 청림사 대웅전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한 불상으로, 조성역사는 을사년(1605) 초겨울(孟冬)에 시작하여 이듬해 늦은 봄(季春)에 일을 마쳤다. 불상조성에는 수많은 평범한 신도와 승려들의 시주로 불상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석준(釋俊)7)의 증명 아래 상화원(上畵員) 각민(覺敏)8), 각심(覺心), 행사(幸思)9), 휴일(休一), 덕잠(德岑) 등 5명의 조각승들이 함께 제작하였다. 1883년 개금 중수에는 19세기 후반에 크게 활약한 화승 선율(善律), 약효(若效) 등이 참여하였다.

본존 석가여래는 변형의 편단우견을 걸쳐 입고, 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육계와 머리를 분명하게 구분 짓지 않은 두부(頭部)에는 반달형의 중앙계주와 구형의 정상계주를 조각하였고, 머리칼은 나발로 여백 없이 촘촘하게 부착하였다.

7) 釋俊은 1599년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상을 개금하였고, 1600년에는 김제 금산사 대장전 재건에 참여한 승려화원이다.

8) 각민은 161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 제작에 수화승으로 참여하였다.

9) 행사는 1614년 전남 순천 송광사 대웅전 삼존불상(수화승 각민)과 1648년 해남 도장사 목조석가여래삼존상(수화승 해심) 제작에 참여하였다.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여 사바세계의 중생을 굶어 살피듯 시선을 처리하였다. 행인형으로 돌출한 눈두덩 사이로 새긴 반개한 가는 눈은 선정에 잠긴 듯 고요하고, 뚜렷한 이목구비는 부드럽고 사실적으로 묘사하였다. 얼굴은 날렵한 턱과 절제된 양감으로 인해 17세기 중·후반의 불상에 비해 가름하고 정돈된 느낌인데, 이러한 특징은 이 불상이 조선 전기와 후기 불상을 연결하는 가운데 지점에 있는 불상임을 시사한다. 좌우 협시불상 역시 석가불상의 상호표현과 거의 같다. 다만 석가여래의 고요하고 엄숙한 얼굴에 비해 좌우협시 불상의 상호는 좀더 경쾌하고 생동적으로 표현하여 변화를 주었다.

삼불상의 착의형식은 조선후기 석가여래삼불형식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듯이 본존 석가여래는 대의자락이 오른쪽 어깨를 드리운 변형의 편단우견, 좌우 협시불상은 두 장의 대의를 걸친 이중착의법이다. 대의에 표현된 주름은 골의 깊이 변화가 없는 비교적 변화가 없는 직선의 선묘를 위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힘이 들어간 곡선도 간혹 사용하고 있다. 삼불(三佛) 모두 가슴에는 비스듬히 접은 수평의 군의 자락이 표현되었는데, 형식적이지 않고 사실적이다. 무릎 앞쪽에는 긴 대롱 모양의 주름 좌우로 수평의 3단 주름이 펼쳐져 있다. 좌우 측면과 배면에는 주름을 새기지 않았으나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된 불의(佛衣) 속에 건장하면서도 부드러운 불신(佛身)의 실루엣을 느낄 수 있다. 비록 간결한 직선 위주의 선묘지만 경직되지 않고 신체와 유기적으로 잘 밀착되어 율동적이다.

수인은 석가여래는 향마촉지인을, 좌우협시 불상은 엄지와 중지를 맞댄 양 손을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손은 대체로 두텁고 손가락은 짧은 편이다. 엄지와 중지를 구부려 맞댄 손짓은 꺾인 모습이 다소 부자연스럽다.

삼불상은 머리와 상·하체 부분의 연결이 자연스럽고 안정되어 비교적 조화로운 형태미를 보이고 있지만, 석가모니불상의 비대칭적 어깨표현이라든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수인 등은 결점이다. 비례 면에서 보면, 이 삼불좌상은 장대한 신체에 비해 얼굴은 작고 무릎은 넓고 낮은 편이어서 큰 상이 아님에도 장대한 느낌이다. 이는 예배자로 하여금 높은 불단 위에 앉은 불상이 보다 장엄하고 장대하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불상은 절제된 듯 고요하고 차분한 호남형(好男形)의 얼굴, 오른쪽 어깨로 수직의 3단 주름, 자연스럽게 접은 수평의 승각기, 그리고 무릎 좌우에 표현된 수평의 3단 주름, 왼쪽 팔꿈치 측면에 율동적으로 표현된 ㄱ형의 주름, 그리고 발목 아래로 대롱 모양의 띠 주름을 길게 드리우고 그 좌우로 수평의 주름, 무릎을 낮추고 어깨를 건장하게 표현하여 예배자의 시선이 얼굴에 집중되도록 의도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은 이 삼불상과 비슷한 시기에 제작된 논산 쌍계사 대웅전 석가여래삼불좌상(17세기 초)이나 군산 상주사 석가여래삼불좌상(17세기 초), 그리고 이 보다 약간 늦은 익산 승림사 목조석가여래좌상(1614년)이나 김제

귀신사 비로자나삼불좌상(1626~1633년경) 등 17세기 초·전반에 제작된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상통한다. 이 삼불상의 1606년이라는 제작시기를 통해 볼 때 17세기 불상의 양식 형성은 물론 나아가 조선후기 불상의 선구적인 위치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삼불상의 복장에서는 후령통을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전적, 다라니, 공양물 등이 발견되었다. 이 복장유물은 1606년 불상의 제작 당시와 1883년 중수 개금 시에 봉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① 석가여래 복장유물

No	명칭	재질/판종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후령통	동	1점	1606년	11×4	*황초폭자에 싸여 있고 남쪽 만에 남쪽을 나타내는 범자를 주서로 썼음
2	발원문	종이	1점	1606년	29×176.	필사
3	장식편	금동	1점	조선후기	6.5×8.3×1.8	*斧鉞모양의 장식편
4	동경	동	1점	조선후기	5.6×3.5×1	*만자와 육자대명왕진언을 양각함.
5	묘법연화경 권제6~7	목판본	1책	1555년	36.2×24.8	선장, 앞뒤 표지와 본문 몇장이 결락되었음. 을해자본계. 광덕사
6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조선시대	32.1×20.8	선장, 전후 표지 일실, 대자본계, 8행 13자.
7	불설장수멸죄호제 동자다라니경	목판본	1첩	1415	31.4×225.3	절첩장, 현존유일본, 약사불에 후반부 있음. 훼손이 심함.
8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65년	29.2×16.7	가철, 앞뒤 표지 없고, 거의 해책 상태임, 복천사.
9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6년	34.7×22	가철, 마지막2~3장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음, 서대사.
10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세기 후반	25.6×16.1	가철, 표지 전후 일부 일실. 소자본.
11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6년	36.5×24	선장, 앞뒤의 표지가 없고, 권7의 말미가 결락되었으며, 권제5 낱장을 여기에 통합시켜야 함. 갑인자본계.
12	묘법연화경 권2~3	목판본	1책	1555년	35.9×25	선장, 앞뒤의 표지 없음, 을해자본계, 광덕사.
13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65년	32.5×19	가철, 복천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갑인자본계.
14	묘법연화경 권6~7	목판본	1책	1405년	27.8×15.8	가철, 안심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성달생본계, 권6은 1~6장이 결락됨.
15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조선전기	36×21.2	가철, 전후 표지 일실, 권3의

						52~68장만 있음. 권3은 1~51장은 약사불에 있음. 갑인자본계.
총 15건 15점						

② 약사여래 복장유물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개금중수봉안 원문	종이	1	1883년	51×58.5	필사.
2	후령통 일괄		1	1606년	5.8×4	황초폭자로 쓴 후령통과 발원문을 범자다라니 여러장으로 감싸고 청색끈으로 묶음.
3	銅鏡	동	1	조선후기	19×11.2×0.5	*뒷면에 “整衣冠尊瞻視”라는 명문을 양각함.
4	黃色紬	명주	1	조선시대	39.5×487.5	
5	黑色紬	명주	1	조선시대	7×4×3	
6	구슬류	옥, 수정	6	조선시대	1.0~2.5	
7	봉함목	나무	1	조선시대	11.7×14×3	*목서로 “左”라고 적고, 주서다라니를 적었음
8	목재편	나무	1	조선시대	10.5×4.5×3.5	*목서로 “東”이라고 적었음. 왼쪽 손목 부근에서 발견되었는데, 왼손을 지지하던 지지목으로 추정됨.
9	묘법연화경 권1~2	목판본	1책	14세기후반	27.7×16.8	가철, 표지 후반 일부 일실.
10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세기	27.8×16.7	가철, 앞뒤 표지는 없고, 앞부분의 결락이 있음.
11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05년	28.1×16.8	선장, 안심사, 전후 표지 일실, 성달생본계.
12	불설장수멸죄호제 동자경	목판본	1첩	1415년	31.5×846.6	절첩장, 현존 유일본, 석가불에 전반부 있음.
13	범망경노사나불설 보살심지계품 제10권 하	필사본	1책	16세기	31×18	전후 표지 일실, 중도가 합철.
14	삼경합부	목판본	1책	15세기	28.6×17.3	금강반야바라밀경 외에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과 대불정수능엄신주를 합철한 1책임.금사사
15	육경합부	목판본	1책	1424년	26.6×16	선장, 안심사, 전후 표지 일실.
16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77년	28.2×19.5	선장, 화암사, 전후 표지 일실, 성달생본계.
17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539년	28.8×17.4	선장, 심원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화암사본계.
18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7년	34.8×20.5	선장, 보광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갑인자본계.
19	묘법연화경 권2	목판본	1책	13세기 후반	28.5×846.2	절첩장, 표지 전반 일부 일실, 접장본.
20	육경합부	목판본	1책	1465년	24.6×15.3	가철, 대불정능엄신주, 금강경,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예문, 묘법연화경관세음보살

						보문편, 불설아미타경 순으로 제책됨. 장차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음.
21	감지금니묘법연화경	금사경	1첩	15세기	22.1×290.4	접장본, 배면 은사경.
22	묘법연화경 권4~5	목판본	1책	1555	36×25	선장, 광덕사, 전후 표지 일실, 을해자본계.
23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93년	38.1×21.9	선장, 무량사, 전후 표지 일실, 갑인자본계.
24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5세기	35.1×22.1	선장, 전후 표지 일실, 갑인자본계.
26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70년	32.4×20.4	선장, 전후 표지 일실, 대자본.
27	묘법연화경 권3	목판본	1책	1537년	36.3×21.9	선장, 보광사, 표지 전후 일부 일실, 갑인자본계.
총 27건 31점						

③ 아미타여래 복장유물

No	명칭	재질	수량	연대	크기(cm)	비고
1	조성발원문	종이	1	1606년	27.2×214.7	필사
2	개금중수봉안원문	종이	1	1883년	49.3×56.9	필사
3	후령통일팔	동비단	1	1606년	8.3×4.6	*내부에 오보병, 양면원경, 심주 등이 남아 있음.
4	소색주	명주	1	조선시대	24.8×269	
5	직물편	비단	3	조선시대	백색 : 14.3×8.6 흑색 : 11.6×6.5 적색 : 19.5×8.2	*흑색 직물편에는 주서로 오륜중자를 적었음. *적색 직물편은 적색과 감색을 바느질로 겹쳐붙였음.
6	구슬류	옥수정	5	조선시대	0.7~2.5	*붉은색 구슬 2점 *수정구슬 2점
7	봉함목	나무	1	조선시대	10.5×4.5×3.5	*목서로 “阿彌陀佛”이라고 적음
8	금강반야바라밀경	목판본	1책	1387년	24.3×14.3	가철, 강인부, 전후 표지 일실, 천로해본, 6~30장 존재.
9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5세기	35.2×22.3	가철,
10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15세기	35.4×21	가철, 권3은 1~2장 결락.
11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451	28×17.7	가철, 전후 표지 일실, 명빈 김씨발원.
12	묘법연화경 권3~4	목판본	1책	조선전기	27×16.4	가철,
13	대방광불화엄경입불사의해탈경계보현행원품	목판본	1첩	14세기	22.8×14.8	선장, 전후 표지 일실, 현존 유일본, 석가불에 전반부 있음.
14	제경합부	목판본	1책	1563년	25.1×16	포배장, 전후 표지, 감로사, 梅竹軒 발문.
15	묘법연화경 권1~3	목판본	1책	14세기 후반	26.8×16	선장, 표지 후반 일부 일실, 소자본.
16	금광명경 권1	목판본	1첩	14세기	30×228.7	절첩장, 후반부 일실. 1~4장

						존재.
17	불설장수멸죄호제 동자다라니경	목판본	1첩	1378년	30.1×159.2	절첩장, 전후 표지 1첩, 1~3 장 존재.
18	범망경노사나불설 보살심지계품 제10 권 하	목판본	1책	14세기	25.5×15	선장, 표지 전반 일부 일실.
19	오등 권6	목활자본	1책	15세기	29.6×19.4	가철, 표지 전반 일부 일실, 현존 유일본.
20	묘법연화경 권5~7	목판본	1책	1536년	34.7×22.1	선장, 서대사, 전후 표지 일 실, 갑인자본계.
21	묘법연화경 권4~7	목판본	1책	1405년	27.5×15	선장, 안심사, 성달생본(원 간본).
22	화엄신중	목판본	1책	1462년	27.6×19.9	선장, 화암사, 전후 표지 일 실, <사미수계문> 필사 합 철
23	금강반야바라밀경	목판본	1책	14세기	15.5×21.5	선장.
24	묘법연화경 권1	목판본	1책	15세기	26.3×14.8	가철, 표지 전후 일부 일실, 화암사본계.
25	육경합부	목판본	1책	1462년	26×16.5	가철, 화암사, 전후 표지 일 실.
총 25건 31점						

○ 문화재 지정 가치 :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06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석준(釋俊), 각민(覺敏) 등은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으로 추정되는데, 1600년을 전후한 시기의 화승들의 활동과 교류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불상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16세기 조각전통을 계승하면서 17세기 새롭게 대두된 대중적인 평담한 미의식도 반영하고 있고, 석준이나 각민의 문하에서 수학한 조각승들이 17세기 불교 조각계를 주도하고 있는 만큼 여러모로 이 석가여래삼불상은 조선 중·후기 불교조각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불상임에 틀림없다.

또한 도상적으로 임진왜란 이후 비로자나삼불상과 함께 크게 유행한 석가여래삼불 형식을 정확히 보여주며, 발원문에 정확한 존상명칭을 기록하고 있어 이후 전개될 석가여래삼불상 도상연구에도 기준이 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이 석가여래삼불좌상은 복장유물과 함께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보호 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

(公州 東鶴寺 木造釋迦如來三佛坐像 腹藏典籍)

○ 지정현황 : 비지정

○ 소 유 자 : 대한불교조계종 동학사

- 수 량 : 일괄(7종 8책)
- 규 격 : 본문 참조
- 재 질 : 저지(楮紙)
- 판 종 : 본문 참조
- 형 식 : 본문 참조
- 제작연대 : 14세기~15세기
- 내용 및 특징 :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은 동학사 대웅전에 봉안된 삼불상에서 발견된 불서들로 모두 임진왜란 이전의 간사본이다. 이 중에서 희귀본, 귀중본, 완전본 등을 고려하여 7종 8책은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가치가 충분하므로,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전적”으로 일괄 지정하고, 나머지는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복장유물”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서 지정 가치가 있는 불서의 내용과 특징 및 지정 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권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卷六

명칭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권4,권6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卷四, 卷六		
수량 /규 격	2권2책 / 37.7×25.2cm	판종	활자본(을해자)
형식 /재질	선장 / 저지·고정지	조성연대	1455~1468년(세조년간)
현상	앞뒤 표지가 없고, 권4은 152장, 권6은 117장인데 제1~3장 하단부 일부와 제117장의 전면 1~2행과 후면 卷末題에 부분적인 손실이 있고 그 외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四周單邊, 半郭; 26.8×20cm. 有界, 半葉 大字 9行16字, 中字 9行21字, 註雙行, 上下內向黑魚尾. 판심제 : 圓覺經		
내용 및 특징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은 당나라 永徽年間(650~655)에 북인도의 승려 佛陀多羅가 한역하였다. 총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圓覺經』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려에서는 지눌이 중시하여 널리 유포되었으며, 조선 초부터는 승려의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학습하게 되었다. 이 책은 세조년간(1455~1468)에 乙亥字本으로 간행되었으며 殘存本은 권4와 권6의 2권2책으로 零本이다. 권두제는 大字로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이란 경명이 있고, 이어 다음 행에 中字로 ‘終南山草堂寺沙門宗密述’라 하여 찬술자를 밝히고 있다. 본문은 9행 16자로 大·中·小字가 모두 사용되었고 구결이 묵서되어 있다. 권말에는 音釋이 수록되었으며, 권수제 상단에는 교정 필한 ‘校正’이란 印記가 날인되어 있다. 印經紙도 세조년간 간행본에서 많이 보이는 저지와 고정지가 혼합된 종이가 사용되었다. 복장품이라 앞뒤 표지는 없으며, 권4는 본문이 완전하고 권6은 제1~3장과 제117장이 일부 손실이 있으나 비교적 상태는 양호하다.		
지정가치	이 『圓覺經』 권4, 권6은 세조년간(1455~1468)에 인출된 을해자본이다. 을해자		

	대·중·소자가 혼용되어 있어서 조선전기의 불경판본과 금속활자 연구에 매우 귀중한 판본이며, 권수제 상단에는 ‘校正’이란 印記가 있어 서지학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특히 인출본이 거의 발견되고 있지 않아 희귀본에 속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

2.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6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諺解 卷六

명칭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 언해 권6		
수량 /규 격	1권1책(권6) / 32.5×23.3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462년(세조 8)
현상	앞뒤 표지 없고 권6은 제1~115장으로 본문이 缺張없이 완전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四周雙邊, 반곽 21.7×18cm, 有界, 半葉 9行17字, 註雙行,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판심제 : 楞嚴經		
내용 및 특징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언해본은 당나라 般刺蜜帝가 번역하고 송나라의 戒環이 해설한 註解本에 信眉의 도움을 받아 韓繼禧·金守溫 등이 國譯한 활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에서 간행한 판본으로 전10권 가운데 권6의 1권1책이다. 흔히 『首楞嚴經』, 『大佛頂首楞嚴經』, 『楞嚴經』 등으로 略稱하기도 한다. 한글에는 傍點이 붙어 있어 한글 창제 무렵의 국어의 특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권수서명 상단 난외에는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을 확인케 한다. 조선전기 불경판본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이와 동일본으로 국보 제212호는 완질이며, 보물 764호(권2~4, 6~10), 765호(권1,4), 등이 지정되어 있다.		
지정가치	이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언해본은 1462년(세조 8)에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목판본으로 권6의 1권1책이다. 본문이 완전하고 권수제 상단에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교정이 완료된 판본임이 주목된다. 동일본이 국가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학사본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3. 육경합부(六經合部)

명칭	육경합부(六經合部)		
수량 /규 격	1책 / 26×16cm	판종	목판본
형식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424년(세종 6)
현상	앞뒤 표지가 없고, 본문은 얼룩져있으나 缺張없이 완전하며,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四周單邊, 반곽 20×12.7cm, 無界, 半葉 8行17字, 無魚尾 金剛般若波羅蜜經末 : 全羅道高山地安心寺開板 觀世音菩薩禮文末 : 永樂甲辰六月日…成達生跋 발 문 : 永樂甲辰(세종6, 1424)六月日 平安道都觀察黜陟使 兼 平安府尹成達生 跋. 同願 信玄, 刻手 尙聰		
내용 및	육경합부는 金剛般若波羅蜜經,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妙		

특징	法蓮華經觀世音菩薩普門品, 佛說阿彌陀經, 大佛頂首楞嚴神呪, 觀世音菩薩禮文 등 6개경의 합편을 이룬다. 권말의 성달생 발문에 의하면 금강경은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가장 지름길이 되는 대승경전으로 초학들이 반드시 먼저 독송하여야 하는데, 일찍이 崔斯立이 필서하여 새긴 판본이 해가 오래되어 글자가 닳고 이지러져 배우는 이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평안도 도관찰출척사 겸 평양부윤으로 부임하고 있었을 때 도인 佛明이 이것의 필서를 요청하고 信玄이 또한 함께 발원하매, 위로는 주상전하의 수만세와 태종대왕의 증득성불 그리고 다음으로 돌아가신 부모님 仙駕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해 그 금강경을 필서하였다. 그리고 이어 아미타경·보현행원품·관세음보살보문품·수능엄신수·관세음보살예문을 차례로 필서하여 합쳐 一部를 이루었다. 이것을 세종6년(1424) 6월 전라도 안심사에서 각수 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것이 초각판이며, 바로 이 판본은 그중의 1부가 전래된 것이다. 그 개판지와 개판사찰은 금강경의 말미에 표시되어 있으며 이어 豐壤郡夫人 趙氏·咸羅郡夫人 南宮氏·故金氏 등의 시주질이 있다. 약사불과 아미타불의 복장에서 나온 육경합부의 판종은 다양한데, 그 대부분이 後刊의 번각본이다. 이 판본은 書口가 약간 훼손되었으나 본문은 결장 없이 완전하다. 드물게 볼 수 있는 판본이며, 또한 그 판각과 인쇄의 품격이 특출하게 돋보이는 독자적 판본이다.
지정가치	이 육경합부는 1424년(세종 6)에 전라도 安心寺에서 刻手 尙聰이 판각하여 펴낸 초각판이다. 권말의 성달생의 발문에는 이 책의 간행동기 및 간행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전기 불교사 및 불서판본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되므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4. 묘법연화경(언해) 권2 妙法蓮華經(諺解) 卷二

명칭	묘법연화경(언해) 권2 妙法蓮華經(諺解) 卷二		
수량/규격	1권1책(권2) / 31.9×23.2cm	판종	목판본
형식/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463년
현상	앞뒤 표지가 없으며, 권2의 본문은 제174~266장 까지 있으며, 권말에 音釋이 수록되어 있고 상태는 양호하다.		
서지사항	四周雙邊, 반곽 21.5×18.1cm, 有界, 半葉 9行17字,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판심제 : 法華經		
내용 및 특징	이 묘법연화경은 요진시대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에 송나라의 戒環이 주해하고 一如가 집주한 것에 세조9년(1463) 9월 刊經都監에서 왕명을 받들어 국역으로 간행한 목판본이다. 전 7권 가운데 권2에 해당하는 1권1책이다. 권두제 없이 '妙法蓮華經信解品第四'를 시작으로 경문이 이어지고 본문에는 한글로 토를 달고 국역의 한글에는 방점을 찍었다. 경전의 본문은 후반부 제174~266장까지 일부만이 남아 있어 완전하지는 않다. 권2 권말제에 이어 音釋이 수록되어 있다. 권두 상단 난외에는 '校正'이란 인기가 날인되어 있어 조선전기 불경판본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판본이다 이와 동일본이 보물 1010-2호(권1,4), 제1140호(권3上·下)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가치	묘법연화경 언해본 권2은 세조의 명으로 국역하여 간경도감에서 1463년에 간행한 목판본이다. 한글로 번역하여 正音의 명맥을 이어 발전을 보게 한 귀중한		

	국역자료인 점과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판본의 형태적 특징이 잘 갖추어 있어서 중세국어사 및 조선전기 판본연구에 있어서 매우 귀중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동일본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동학사본도 국가문화재로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

5.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명칭	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수량 / 규격	1첩 / 28.5×876.5cm	판종	목판본
형식 / 재질	折帖裝 / 저지	조성연대	1378년(고려 우왕4)刻, 조선초기 인출
현상	표지는 紺色인데 표제부분이 일부 훼손되어 표제의 금서로 쓴 앞글자가 보이지 않으며 본문에 얼룩이 있으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上下單邊, 상하간 18.7cm, 無界, 全葉 30行17字, 無魚尾 관심제 : 長 表題 : □□長壽滅罪經 권말 : 著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		
내용 및 특징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석가세존이 무수보살에게 중생이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다시 악업을 짓지 않도록 불법에 귀의하면 죄를 면하고 무병장수할 수 있음을 설한 내용이다. 이 판본은 권말의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경의 완본 권수제 다음에는 佛陀波利 奉詔譯임이 표시되어 있으나, 위경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책은 일반 중생에게는 가장 절실한 경전이므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걸쳐 간행되어 판종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다. 이 책은 1378년에 간행된 중간본이다. 앞표지에는 금니로 “OO長壽滅罪經”이라고 제명을 적어 놓았다. 1장의 행자수는 30행 17자이며, 모두 1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의 장수표시 윗부분에는 이 경을 약칭하는 “長”이라는 제명을 새겨 놓았다. 권말에는 “著雍敦牂(戊午,1378)立辰月有日圓齋書”와 같이 1378년에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다. 前別將 許珍, 奉善大夫典農副正, 開城郡夫人 王氏등이 동원자로 참여한 사실 역시 이 시기에 간행된 사실을 보여준다. 판식, 서체, 지질, 장정 등으로 판단하면 1378년경에 판각되어 조선초기에 인출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정가치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은 1378년에 판각된 목판본으로 권말에는 圓齋 鄭公權(1333~1382)이 지은 발문이 있어 간행과정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알려지지 않는 유일본이다. 불교사 및 판본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6. 불조삼경 佛祖三經

명칭	불조삼경 佛祖三經		
수량 / 규 격	1책 / 26.7×16cm	판종	목판본
형식 / 재질	선장 / 저지	조성연대	1384년(고려 우왕10)
현상	표지는 없으며 益大가 1286년에 쓴 발문 1장이 결락되었으나 상태는 대체로 양호하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上下單邊, 반곽 21.6×14.9cm, 有界, 半葉 8行17字, 註雙行, 上下向黑魚尾 판심제 : 四十二章, 遺教, 滄山 序文 : 至元丙戌(1346)....德異 敘. 佛說四十二章經 末 : 白雲子悟, 返源, 志喜 志建, 志林. 德善海經, 志善, 省宗, 祐勤, 松莊, 甘磨從, 每莊, 依德四年 金加勿 元滿 金得富 李元忠 道心 檢校中郎將 金文孟. 莊恩臺, 小口 金洪 漢鄉 加伊奉加 跋 文 : ○ 釋志峯與志道覺溫施主金氏曰大難者重刊佛祖三經來請予跋.....青龍 甲子(1384)十月日推忠保節同德贊化功臣三重大匡韓山府院君 李穡(1328~1396)跋. ○[丙戌(1286) 比丘益大 跋]		
내용 및 특징	佛祖三經은 佛說四十二章經, 佛遺教經, 滄山警策의 合綴本이다. 佛說四十二章經은 중국 후한 때 인도사람 迦葉摩騰·竺法蘭이 번역하여 처음으로 중국에 전한 불경으로 불교의 요지를 42장으로 간명하게 설명한 경전이며, 佛遺教經은 姚秦의 鳩摩羅什이 漢譯한 가르침을 남기는 경전이라는 제목의 뜻처럼 석가가 열반에 들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滄山警策은 중국 滄仰宗의 祖師인 靈祐의 저술로 범어록이며, 선사의 어록에 해당된다. 이 책은 권수에 蒙山和尚 德異의 序文과 卷末에 益大가 쓴 발문이 같은 1286년인 것을 보면 원나라에서 간행된 판본에 수록된 德異序와 益大跋文이 그대로 판각되어서 1384년에 重刊한 판본임을 李穡의 발문에서 알 수 있다. 佛祖三經은 1361년에 전주 圓巖寺에서 行心の 발원과 法空과 尹善이 함께 간행한(보물 제694호)판본과 1384년의 이색 발문이 있는 판본(보물 제695호, 제1224호)과 그리고 이색 발문과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판본(보물 제1224-2호, 범어사소장)등이 지정되어 있다. 동학사본은 丙戌(1286)년에 益大가 쓴 발문이 수록된 보물 제1224-2호와 동일본이다.		
지정가치	불조삼경은 원나라의 고승인 蒙山 德異가 편찬한 것이다. 元刊本에 수록되어 있는 益大의 발문이 수록되어 있어 원간본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판본이다. 뿐만아니라 러말선초의 선종사 연구 및 판본을 비교하는 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7.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명칭	지장보살본원경 권하 地藏菩薩本願經 卷下		
수량/규격	1권1첩(권하) / 31.3×722.1cm	판종	목판본
형식/재질	절첩장 / 저지	조성연대	15세기
현상	앞뒤 표지는 상지인데 훼손되어 일부 결락되었다. 표제는 없고, 본문은 완전하며, 17장으로 연결된 절첩식이다.		
서지사항	서지사항 : 上下單邊, 左右雙邊, 전곽 22.4×55.2cm. 有界, 全葉 25行17字, 無魚尾 판심제 : 地下 卷末 墨書 : 大功德主 孝寧大君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 性照		
내용 및 특징	地藏菩薩本願經은 지옥에서 고통 받는 중생을 천도(薦度)하여 극락에 오르게 하는 내용과 의식 방법을 다룬 경전으로 줄여서 地藏經이라고 하며, 지장신앙의 기본 경전이다. 이 地藏經은 上·中·下 3권 가운데 下卷에 해당하는 1첩으로 零本이다. 상하에 변란과 계선이 있고 한 면에 5행씩 절첩하였으며, 17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권말에는 釋音이 있고 끝에 ‘此經出大藏秘密經橫字函’이란 출처기록이 있다. 난외에는 목서로 大功德主에 孝寧大君(1396~1486)과 하단에 性眉, 草牛, 性海, 義敬, 性月, 達胡, 緣化는 性照 등이 기록되어 있어 15세기에 간행된 판본으로 추정된다.		
지정가치	地藏菩薩本願經은 상중하 전 3권중 卷下로서 1권 1첩이다. 권말 목서에 大功德主가 孝寧大君으로 보아 왕실발원으로 보이며, 15세기에 간행된 목판본으로 . 보물 제933호보다 시기적으로도 빠른 귀중본에 속하는 불교사 및 서지학연구에 가치가 있으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관리되어야 한다.		

□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束草 神興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 지정현황 : 강원유형문화재 제143호(2003.04.25. 지정)
-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 수량 : 3구
- 규격 : 목조아미타불좌상 높이 164cm, 무릎 폭 114cm
 목조관음보살좌상 높이 147cm, 무릎 폭 95cm
 목조대세지보살좌상 높이 152cm, 무릎 폭 91cm
- 재질 : 목조
- 제작연대 : 1651년(효종 2)
- 내용 및 특징 : 신흥사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는 이 삼존상은 아미타불을 주존(主尊)으로 좌우에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배치한 전통적인 아미타삼존형식을 보여준다. 관음보살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안장엄축원문>과 아미타불상의 바닥면에 쓰여진 목서명에 따르면 이 삼존불상은 순치 8년(효종2, 1651)에 무염 일파에 의해 조성된 불상임을 알 수 있다.

본존 아미타여래는 높은 수미단 위에 다시 부정형의 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머리는 나발로 촘촘하게 부착하였고, 머리와 육계를 정확하게 구분 짓지 않은 두부(頭部)에는 정상계주와 중앙계주를 나타내었다. 이마는 넓고 편평하며 양미간에는 백호를 박아 넣었다. 부드럽게 솟은 눈썹골 위로 눈썹선을 그려 넣었고, 활처럼 휘어진 눈썹 선은 오뚝한 콧날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다. 코는 미간 사이에서 갑자기 돌출한 돌출코이나 콧날은 길고 부드럽고 사실적이다. 양 미간아래에서 갑자기 솟구쳐 오르듯 표현한 돌출코는 17세기 불상에서 자주 확인된다. 두툼하게 솟은 눈두덩 사이로 사바세계 중생을 굽어보듯 고요하게 반개한 눈매를 표현하였다. 상하 폭이 긴 얼굴은 팽창한 뺨, 복주머니처럼 잡힌 입술주머니, 두툼한 귀 등 얼굴에는 전반적으로 양감이 강조되어 중후하고 자비로운 인상을 준다. 이는 세장한 형태의 선운사 비로자나삼불상(1635년) 등의 전반기 작품에 비해 보다 양감이 강조되고 중후해진 느낌이다.

목에는 삼도의 표현이 뚜렷하고, 착의는 이중착의법으로 가슴에는 수평의 군의를 입었고, 그 아래로 볼록 나온 배의 곡선이 드러난다. 특이한 점은 착의법에서 이 시기 불상에서 통상적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오른쪽 어깨를 반달모양으로 옷자락을 드리우지 않은 이중착의법이다. 불신(佛身)에 걸친 불의(佛衣)는 두텁지 않고 신체와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어 신체의 윤곽이 비교적 잘 드러난다. 섬세하게 조각된 손은 자연스럽게 구부러 중지와 약지를 자연스럽게 구부려 엄지와 맞댄 하품중생인(下品中生印)을 결하였다.

주름의 표현은 상체는 최대한 간결하게, 하체는 세밀하고 복잡하게 하여 대조를 이루게 하였다. 즉 상체는 왼쪽 어깨에 표현된 몇 가닥의 주름과 한차례 반전시킨 못짓 주름을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주름들은 대부분 생략한 반면, 하체는 무릎 위로는 오른발가락을 덮어 내린 짧고 날카로운 잎형 주름이, 발가락 주변으로는 신축성 있는 세 가닥의 단선(單線) 주름을 새겼고, 무릎 앞쪽으로는 넓은 띠 주름을 중심으로 그 좌우로 수평에 가까운 일정한 골깊이를 가진 세밀한 주름을 새기고 둥글게 감아 올린 두 가닥의 주름으로 마감하였다. 이러한 무릎 앞쪽으로 표현된 세밀한 수평의 용기선 주름은 17세기 전반의 단순 3단의 층단 주름에서 좀더 복잡하게 변화된 것으로 1650년을 전후한 시기에 제작된 무염과 조각에서 자주 보이는 특징이다.

협시상인 관음보살상과 대세지보살상의 머리는 끝을 달팽이 모양으로 만 높고 가는 보계(寶髻)를 가지고 있고 근래에 새로 만들어 씌운 보관을 쓰고 있다. 두 보살상 모두 본존불과 마찬가지로 불의를 이중착의법으로 걸쳤고, 부정팔각연화좌 위에 결가부좌하였다. 수인은 엄지와 중지를 둥글게 맞대었으나 좌우 손의 위치를 달리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였다. 우협시 대세지보살상은 세부의 표현에서 본존불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거의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좌협시 관음보살상의 본

존이나 대세지보살상의 상호에 비해 양감이 덜 강조되어 다소 가름한 느낌이고, 꽃잎 모양으로 멋을 낸 군의 주름이라든지, 씨실 날실처럼 엮은 보발의 표현, 비스듬히 무릎 앞으로 펼친 주름과 큼직한 잎형 주름 등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비록 이 삼존상이 수화원 무염의 주도하에 조각되었지만, 대체로 불상제작이 다수의 화원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므로 참여한 조각승의 조각적 역량과 취향에 따라 동시에 조성한 불상이라고 하더라도 세부표현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 이 상 이외에도 이 시기에 조성된 삼존불상에서 더러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 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 : 이 삼존불상은 복장에서 발견된 조성발원문을 통해 1651년이라는 정확한 조성시기와 제작자, 그리고 제작에 참여한 제작주체를 분명히 하고 있어 17세기 중엽경 불교조각사 연구에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이 불상을 조각한 무염은 대화사 현진과 함께 17세기 전·중엽경을 대표하는 화사로 이 작품은 조각승 무염의 작품세계를 시기적으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작품이다.

전체적으로 이 삼존불상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은 무릎, 당당한 어깨, 알맞은 허리 등 안정된 비례와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추고 있다. 또한 상체의 불필요한 주름들은 과감하게 생략하였지만, 불신과 불의가 긴밀하게 밀착·연결되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형태미를 보여 준다. 이러한 면에서 이 삼존상은 무염이 조각적 역량이 흠뻑 담겨 있는 작품이자 그가 조각한 작품 중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대표 작품으로 볼 수 있어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 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총마계회도 (驄馬契會圖)

○ 지정현황 : 전남유형문화재 제261호(2003.10.04. 지정)

○ 소 유 자 : 밀양박씨지산정수공파중중

○ 수 량 : 1폭

○ 규 격 : 족자 146.0× 77cm,

표제: 7.5× 68.4cm

그림: 55.2× 68.4cm

좌목: 34.1× 68.4cm

○ 재 질 : 종이·비단

○ 형 식 : 축(軸)

○ 제작연대 : 1591년(선조 24)

○ 내용 및 특징 : <총마계회도>는 16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계회도의 일반 형식인 표제(標題), 그림, 시문, 좌목(座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는 계회도의 제목으로서 족자의 상단에 붉은색 선으로 구획한 뒤 ‘총마계회도(驄馬契會圖)’ 여섯 글자를

예서(隸書)로 썼다. 총마(驄馬)는 사헌부의 감찰을 부르는 별칭이다. 후한(後漢) 때 환전(桓典)이라는 사람이 시어사(侍御史)가 되었는데 항상 총마를 타고 다녔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외에도 사헌부 감찰은 서릿발 같은 기강을 중시한다는 의미로 '상대(霜臺)'라는 별칭을 썼고, 감찰들의 계획도를 '상대계획도'라 쓰기도 하였다.

<총마계획도>의 그림은 화면 가운데 솟아 오른 봉우리를 중심으로 사헌부의 청사를 좌우대칭형으로 배치하였다. 산을 묘사한 부분은 짙막한 선을 반복한 단선점준(短線點皴)을 사용한 16세기 산수양식을 보여준다. 사헌부의 청사는 정문과 지붕만을 그린 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여 간결하게 그렸다. 참석자들의 수만큼 여러 점을 제작해야 하는 관계로 그림은 가급적 간략하게 그린 것이 특징이다.

계획도에서 시문은 대부분 계획도의 소유자가 직접 썼다. 다른 사람이 쓴 경우는 자호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상례였다. <총마계획도>의 7언시 마지막에 쓴 '신묘중추일(辛卯仲秋日)'은 이 계획도의 소유자가 쓴 것으로 추측된다. '신묘(辛卯)'년의 '중추일(仲秋日)'은 1591년(선조 24) 8월에 해당하며, 계획도의 제작 시기도 이때로 파악된다.

좌목에 기록된 인물은 모두 24인데, 당시 사헌부 감찰의 정원 수와 같다. 개인마다 품계·현 관직·이름·자(字)·본관을 기록하였고, 한 줄을 바꾸어 당사자 아버지의 품계와 관직, 이름을 간략히 적었다.

<총마계획도>는 16세기 계획도로서는 드물게 종이에 그렸다. 그림과 시문 원편에 부분적인 박락이 있고, 좌목의 원편 상단에는 글자의 일부가 떨어져 나갔지만, 판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그림은 세로로 심하게 접힌 흔적이 3곳 있고, 주름이 여러 군데 있다. 족자 상하단의 나무를 분리한 채 접은 흔적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림과 글씨의 전체를 살피는 데는 문제가 없다. 2008년도에 보존처리를 하였는데 계획도 상·하단의 남청색 회장(回粧)과 황색 비단을 보수하여 장황함으로써 원래의 족자 형식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축의 하단 뒷면에는 '밀양박씨고적정은(密陽朴氏古蹟淨隱)'이라 적혀 있다. 수리하기 전 족자의 뒤편에 붙어 있던 별지(別紙)를 수리한 족자의 뒷면에 옮겨 붙인 것이다. '정은(淨隱)'은 정은공 박지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 문화재 지정 가치 : 첫째, <총마계획도>는 16세기 계획도로서 제작연대와 소유자가 분명하다. 시문에 적힌 간기와 좌목에 기록된 인물들의 활동연대에 근거하여 1591년 8월에 만든 것이 입증된다. 이미 지정 받은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대부분의 계획도는 제작연대가 확실하지만 소유자가 밝혀진 사례는 드물다. 소유자가 밝혀진 경우는 이 계획도가 전승되어 온 경위와 제작배경을 살필 수 있는 단서가 되며, 관련 문헌자료와 연계하여 입체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 소장 및 전승경위를 알 수 있다. 충효사 소장 <총마계획도>는 전남 능주 월곡리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1591년 8월 사헌부 감찰에 제수되어 소유

하게 된 것이다. 이후 <충마계회도>는 박지수의 관직 임명장인 교지(敎旨) 등과 함께 후손들에 의해 가장(家藏) 유물로 전승되었다. 박지수의 충절을 기리고자 1598년(선조 31) 지역 유림들이 건의하여 충효사(忠孝祠)를 건립하였고, 고종 때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었다가 1879년(고종 16) 복원하여 박지수와 그의 아들 박천수를 향사하고 있다. <충마계회도>는 1990년대까지 충효사에 소장되어 왔으며, 현재는 밀양박씨 문중에서 관리해 오고 있다. 1591년에 처음 제작된 이후 약 420년 동안 후손가를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말해준다. 셋째, 16세기 후반기 서울의 중앙관청에서 시행된 계회관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충마계회도>는 사헌부의 감찰직 신임관원이 치르는 신고식 관행인 신참례의 실체를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는 1591년에 제작된 호림박물관 소장의 <충마계회도> 2점의 소유자인 안동출신 이정희(李庭檜)의 「연보」와 그가 남긴 『송간일기(松澗日記)』를 통해 입증되는 사실이다. 또한 1591년 전반기 사헌부의 신참례시에 신임 감찰이 준비해야 할 필수 지침물로 계회도를 제작하였고, 박지수가 소유한 <충마계회도>도 이러한 배경에서 제작된 구체적인 자료라는 점을 밝힐 수 있었다. 넷째, 산수와 점경인물의 묘사는 정확한 16세기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충마계회도>의 화법은 조선초기에 유행한 안견파(安堅派) 화풍의 한 요소인 산의 골격과 굴곡을 짧은 선과 터치로 처리하는 단선점준(短線點皴)의 여혼이 보인다. 점경인물의 묘사 또한 소략하지만, 17세기초 의궤(儀軌)의 반차도에 보이는 간략한 묘사방식과 유사하여 16세기 후반기 화풍의 일면을 담고 있다. <충마계회도>는 16세기 그림 가운데 몇 점에 불과한 기년작(紀年作) 회화에 포함되는 사례로서 조선조 전반기 회화의 양식사 연구에 활용도가 높은 자료이다. 다섯째, 계회도의 장황이 제작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16세기 족자본 회화의 장황 복원의 기준 형식을 제공하고 있다. <충마계회도>는 장황을 바꾸거나 그림에 가필(加筆)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특히 계회도의 상하단에 붙인 남색(藍色)의 회장과 황색 비단, 좌우에 좁게 덧댄 남색비단 등은 16세기 후반기 계회도 장황의 일반적인 형식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최고(最古)의 계회도로 알려진 경기도박물관 소장의 사헌부 감찰 계회도인 <이십삼상대회도(二十三霜臺會圖)>(1487년 작)와도 장황형식이 같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십삼상대회도>는 상단의 남색 회장이 떨어져 나간 상태지만, 하단의 회장과 황색비단 등은 <충마계회도>의 장황과 동일한 형식임을 알려준다. 현존하는 16세기 계회도의 대부분이 후대에 개장된 족자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충마계회도>는 이를 원래의 형태대로 복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상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충효사 소장의 <충마계회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계회도 가운데 1591년의 제작시기와 능주 출신의 밀양박씨 박지수(朴枝壽)가 소유한 계회도로서 지금까지 약 420년간의 전승경위가 분명히 파악되는 자료이다.

또한 계회의 실행과 계회도의 제작배경이 확인되고, 그림의 화풍과 족자의 장황형식에 있어서도 희소성이 높은 특징을 지니고 있어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연구하고 관리·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군산 동국사 소조석가여래삼존상 및 복장유물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 석가모니불좌상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아미타불좌상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약사불좌상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유물-발원문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전적-불설장수멸죄호제동자다라니경



공주 동학사 목조석가여래삼불좌상 및 복장전적-불조삼경



속초 신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